

# 나눔수록 배가 되는 즐거움

### 진안 농촌재능나눔 캠프 대학생 등 50여 명 참가



진안군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2박3일간의 일정으로 대학생 및 전문직, 일반인 등 50여명이 참여하는 농촌재능나눔 일반캠프가 원연장마을에서 개최됐다.

이번 재능나눔 일반캠프는 농촌의 부족함을 채우는 재능나눔을 통해 마을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유도하는 농민축산식품부 '농촌재능나눔캠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재능기부자들에게 단순히 재능을 기부 받는 형태가 아닌 마을과 지역에서도 우리가 가진 재능을 참가자들에게 기부하는 형태로 프로그램 기획하고 진행되었다.

재능기부자들은 꽃잔디축제가 이루어지는 원연장마을의 특성을 고려하여 벽화그리기와 아트월제작 및 설치 등을 통해 경관을 개선하고 불거리 제공함으로써 1석2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네일아트와 노래교실 등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민과 교류함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하고 농촌활력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시간을 가

졌다. 원연장마을에서는 재능기부자들을 위해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활용하여 맛있는 음식과 간식을 제공하였으며, 마을만들기사업으로 조성된 체험관을 숙박공간으로 제공하여 재능기부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하였다. 신애숙 이장은 마을만들기사업 추진 사례 강의를 통해 재능기부자들이 농촌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박병환 노인회장과 노남수 어르신은 잔공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재능기부자들에게 체험거리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경기도에서 온 이봉주 재능기부자는 "여러 차례 재능나눔 캠프에 참여하였지만, 이번 캠프는 재능기부를 하러 온 것이 아니라 힐링을 하러 온 것 같다"고 말했다. 이항로 군수는 "이번 캠프로 농촌과 농민에게 삶의 활력을 주고, 도시민들이 농촌을 이해하고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며, "마을만들기사업과 연계해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재능나눔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무주경찰, 실종 미귀가자 극적 구조

무주경찰서(서장 최성규)는 지난 3일 밤 8시경 실종된 지 4일 만에 60대 후반의 신 모씨를 극적으로 발견해 집으로 귀가시켜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경찰은 3일 밤 비가 내리는 가운데 부남면 울소마을 산악지역 일대를 일제히 수색해 뒷밭근처에서 쓰러져 있던 실종자 60대 후반의 신 모씨를 극적으로 발견해 가족 품으로 안전하게 귀가시켰다.

이번 실종자는 지난달 30일 충남 금산에서 사라진 후 지난 2일 경찰의 공조요청을 받고, 무주군 부남면 지역에서 비슷한 인상착의를 본 것 같다는 제보에 따라 탐문수색을 벌였으나 실종자를 찾지 못했다.

경찰은 실종자 가족과 여성 청소년계 직원과 타격대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 탐문수색을 병행해 CCTV를 활

용한 실종자의 행동반경의 이동경로를 계산하고, 부남면 산악지역까지 포함해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

한편 경찰은 협력단체와 버스운송조합 등에도 적극 협력을 요청하는 등 실종자를 찾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한 결과 부남면 울소마을 방향에서 비슷한 사람이 지나간 것 같다는 주민 제보를 받았다.

경찰은 울소마을 뒷편 임도를 중심으로 가족들과 함께 수색하던 중 뒷밭에 쓰러져 있는 실종자 신 모씨를 발견해 안전하게 가족들에게 인계했으며, 가족들은 경찰의 아낌없는 노력에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최성규 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실종자와 가족들이 발생할 경우 내 가족처럼 최선을 다해 찾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국립돌리사



### 장수경찰, 신호제어기 합동점검

장수경찰서(서장 윤종섭)는 관내 노후 신호등과 신호제어기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무더운 여름철이 가고 가을을 맞이하여 노후·파손된 신호등, 신호제어기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다.

이번 점검은 현상점검 교통시설담당자와 합동으로 현장 점검하여 지난 여름철 폭우,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녹슬거나 노후, 파손된 신호등, 신호제어기 등을 파악하고 노후, 고장, 교체연도가 경과한 신호제어기 등을 수리 및 교체하기 위해 일제시정점검을 하였으며, 이와 함께 차량통행량이 많은 장수IC에서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신호등 준수 및 안전운행을 당부하는 등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운전지교양도 함께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 완주군, 오늘 응치전투 성역화 추진위 발족

임진왜란 당시 3대 승전지 가운데 하나인 응치전투를 기리는 완주 응치전투 성역화 추진위원회가 발족된다.

박성일 완주군수를 비롯한 군민 500여명은 5일 오전 10시 완주군청 문예회관에서 완주군 응치전투 성역화 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하고, 응치전투 성역화 사업 추진위원회를 본격 발족시킬 예정이다. 응치 전투(3일)는 왜군 2만4000명 중 2만1000여명이 불사한 임진왜란 사상 최대 승전지인데도 불구하고, 현

재 조그만 기념비 하나 달랑 서있는 초라한 상태다.

이에 완주군민들이 적극 나서 응치전투 승전지를 역사 위상에 맞게 성역화를 추진키로 했다.

성역화 추진위원회에서는 먼저 역사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응치전투의 사료조사 발굴작업을 진행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기념관 건립, 기념품 제작, 승전지 정비사업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완주=이종복 기자

## '최선'이 '최고'를 만든다

### 무주군, 10월 월례초회 개최 '긍정의 힘을 기르는 방법' 시청

무주군은 4일 전통문화의 집 대강당에서 10월 월례초회를 가졌다. 이날 초회에는 황정수 군수를 비롯한 공식자 등 2백여 명이 함께 했으며, 참석자들은 '긍정의 힘을 기르는 방법'에 대한 영상물을 시청하고 지역농업발전 유공자와 제20회 무주반딧불축제 유공자 시상식에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는 농협중앙회 무주군지부 김석중 단장과 무주농업협동조합 이원배 상무, 구천농업협동조합 육성훈 과장, 무진장축산업협동조합 이태근 상무, 무주군산림조합 임연택 유봉과장이 무주농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무주군수 표창을 받았으며, 소비재교육중앙회 무주군지회(지회장 임순옥)와 안성면 부녀회(회장 장이순), 부남면 생활개선회(회장 정정숙)를 비롯한 무주군 관공해설사 강진숙 씨, 무주반딧불 야시장 운영위원회 강대성 씨, 무주경찰서 교통관리계 김덕상 씨, 무주경찰서 교통조사계 김현 씨, 무주읍 청년회 회장님 씨, 무풍면 청년회 박희봉 씨, 설천면 관서 부녀회 유순금 씨, 적상면 부녀회 김성숙 씨, 반딧불축제제위원회 김상원, 신애숙, 전금연 씨가 제20회 무주반딧불축제 유공(민간부문) 표창을 수상했다.



무주군은 4일 전통문화의 집 대강당에서 10월 월례초회를 가졌다.

무주군청 농업소독과 지방사무운영 주사보 임경택 주무관을 비롯한 24명의 공무원들도 유공 표창을 받았다. 황 군수는 "제20회 무주반딧불축제를 치르기 위해 한마음 한뜻이 돼 주셨던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린다"며 "작은 일에서부터 정성을 다하는 여러분의 열정과 에너지가 반딧불축제를 비롯한 마을로 가는 축제를 이끌었고 태권도원 진입로 확장사업을 국도 5개년 계획에 포함시키는 원동력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남은 석 달이 긴 시간이라는 생각으로 각자의 일에 최선을 다해주

길 바란다"며 지진 등 재난대비책 마련과 단풍철 손님맞이, 제2회 반딧불농·특산물대축제 등 각종 행사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2017년 예산 편성은 전례 답습적인 것에서 벗어나 2017 무주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준비와, 공약, 그리고 6차 산업화 추진 기반을 세운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강조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계기로 청탁문화 근절에 앞장서 "깨끗한 무주"를 실현하자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무주군, '성매매·가정폭력 예방' 교육 실시

### 공무원 등 2백여 명 대상

무주군은 4일 무주읍 전통문화의 집 대강당에서 공무원을 비롯한 기관 종사자 2백여 명을 대상으로 "성매매 & 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성희롱에 대한 이해와 예방 의식을 제고하고 폭력을 예방해 건강한 사회를 조성한다는 취지에서 마련한 것으로, 같이교육연구원 김명륜(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성희롱, 성폭력 위축전문강사) 대표를 강사로 초청해 100분 간 교육을 진행했다.

김 대표는 마음열기 과정을 통해 참석자들과 성과 폭력, 인권이라는 주제에 대한 생각을 재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시청각 자료를 활용해 '성매매로부터 다음세대 구하기'와 '가

정폭력에 대한 이해'에 대한 내용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사례를 통해 착취와 성차별, 인권침해의 구조 등을 살피고 가정폭력의 유형과 피해 후유증, 폭력의 대물림과 학습된 무기력, 가정폭력을 줄이기 위한 전략 등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날 '성매매 & 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들은 김 모 씨는 "가정이 편안하고 사회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폭력이 우선 근절돼야한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됐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은 물론,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실천을 위해 앞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진안군, 전주 일원에서 홍삼축제 홍보

진안군은 얼마 남지 않은 홍삼축제 홍보를 위해 지난 1일 주말을 반납하고 전주 일원에서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날 장 보러 나온 방문객들이 북적인 모래내 시장을 시작으로 흐린 날씨에도 북적인 한옥마을까지 축제 리플릿과 전단지 등을 돌리며 홍보에 전념했다.

특히 10월 황금연휴를 맞이하여 가족단위 관광객이 많았던 한옥마을에

서는 진안의 대표 캐릭터 빨간망치 '뽀뽀' 인형탈을 쓰고 홍보를 하여 많은 이들의 관심을 이끌 수 있었다.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마이산북부 마이몬테마파크 일원에서 펼쳐지는 진안홍삼축제는 '진안홍삼, 건강을 쓴다!'라는 주제로 펼쳐지며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방문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진안 토마토 일본 첫 수출

진안군은 4일 대표 농산물 중 하나인 명품 진안 토마토 4톤을 일본으로 첫 수출했다.

이번 수출길에 오르는 토마토는 다 불이라는 품종으로 일교차가 크고 최고의 기술로 생산하여 선명한 색상과 높은 당도로 맛 좋고 품질이 우수한 명품 토마토이다.

군은 지역 농산물 수출을 위해 1월 초 진안농산수출영농조합법인 결성을 시작으로 수출 추진협의회 10회, 수출 관련 교육·협정간담회 8회 등 수출 농가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하우스 규격 개선과 농약 사용 지도 등 수출적합 농산물 생산에도 노력을 기울여와 이번 수출로 농가소득 향상과 진안 농산물 브랜드 가치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항로 군수는 "앞으로 토마토 수출을 200톤 이상으로 확대하고 수출농가 워크숍 등을 통해 대외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 장수군 재무과, 환경정화 활동 펼쳐

장수군 재무과(과장 최훈식)는 3일 열린 의암 주논개의 탄신 442주년 및 제49회 장수군민의 날 기념행사 종료 후 환경정화 활동 및 마을세무사 운영 홍보 캠페인 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환경정화 활동은 재무과 전 직원 25여명이 한누리전당 및 행사장

주변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여 청결의식 제고의 계기를 마련했다. 최훈식 재무과장은 "행사종료 후 주변 환경정화 활동을 통해 보람을 느끼고 앞으로 깨끗한 장수 이미지에 앞장서는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진안군, 관내 4개 중학교 70여명 대상 공무원체험

진안군은 관내 4개 중학교(진안중, 진안여중, 용담중, 주천중) 70여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드림업(Dream 業) 진안군청에서 만나는 미래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군은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앞서 작년 공무원체험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한 결과 학생들과 학교의 호응도가 높아 올해는 확대 추진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은 오리엔테이션을 거쳐 명예공무원 입문장을 받고 부군수와의 대화를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자세와 공무원의 일에 대하여 사전 지식을 습득, 관심분야의 공무원과 멘토링을 통해 긍정적인 직업관을 형성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